

루시 오르타 작품 디자인 특성 연구
- 건축적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김 소 영 · 양 희 영⁺
서일대학 의상과 부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Lucy Orta's Fashion Design
- Focusing on the Relevance with Architectural Design -**

So-Young Kim · Hee-Young Yang⁺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Seoil Colleg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0. 1. 18. 접수; 2010. 2. 26. 수정; 2010. 3. 4. 채택)

Abstract

This paper aims at studying about spatial structur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Lucy Orta's fashion design. Her works utilizes the thought related on the architectural space that has been revealed sharp change of the paradigm since the late of 20th century. Lucy Orta against individualism of the urban life, and manufactures portable and moving housing and multi-functional fashion that is paved with individual rest unit and give a sense of security through simple combination among the units. Besides, she has development multiple portable clothing and equipments for the rescue through exploiting pioneering high techn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refuge habitant creates individual space for physical and mental protection from the urban surrounding, 2) nomadic dwelling shows multi-functional fashion space fit for digital nomads' life style aims at continuous movement, 3) connective nexus and urban life guard are comprise of detachable individual unit in public space for remaking of the bonds, affinity, and relationship, and the complex of rescue clothing and equipments for meeting a challenge of the threat about human existence from uncertain environmental change in the future.

Key Words: Moving housing(이동 주택), Refuge habitant(구호 거주텐트), Nomadic dwelling(유목적 주거지), Connective nexus(연결형 집합주택), Urban life guard(도시 생활 보호)

I. 서론

20세기 이후 건축과 패션사이의 교착관계는 비단 형태적 유사성 외에도 공간구성방식과 기능적, 미적인 방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건축적 형태의 모방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실루엣과 형태구성방식의 다양성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패션 구성에 있어서의 소재를 다양화시켰다. 패션에 있어서의 새로운 소재의 등장은 기존과는 다른 구성방식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패션 공간이 전통적인 테일러링과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으로 재창조되었다. 1980년대의 해체주의적 건축기법은 1990년대 패션에 영향을 미쳤고 사이버 건축이나 액상 건축 등은 패션디자인 개발에 있어서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결합시키는 디지털 스토어의 출현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의 집합건축의 형태는 1990년대부터 전이적 예술가인 루시 오르타의 작품에서 차용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건축과 의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1990년도 일본에서 시작된 집합 건축적 형태를 모방한 건축적 패션으로 나타났다. 루시 오르타는 21세기 집 없는 노숙자들과 인간이 소외되고 휴머니즘이 사라진 도시생활의 개인주의에 반발해 이동 가능한 주택과 개인의 공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을 손쉽게 결합시켜 공동체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집합 의상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인간의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다양한 이동식 구조의복과 구호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의상과 건축을 결합시킨 이동 건축적 형태로 미래의 패션과 건축사이의 관련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건축과 패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2000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20세기의 시기별 건축적 패러다임과 패션과의 관련성²⁾이나 건축적 구성방식이나 소재를 활용한 패션디자인,³⁾ 건축과 의복이 결합한 건축적 패션에 대한 특성 논의⁴⁾ 등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특정 디자이너 작품에 대한 연구 분석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이후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는 건축적 공간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를 의상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루시 오르타 작품디자인의 특성 및 공간구조와 조형적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건축과 패션에 관한 서적, 선행연구, 정기 간행물, 신문,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내용 고찰을 통한 이론연구와, 건축과 패션 서적, 잡지, 인터넷 웹 사이트 등에서 추출한 실물사진 분석을 통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루시 오르타의 작품디자인에서 건축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로 제한하며, 이 시기의 14가지 주제에 의한 아트 워크 중 건축적 구성이나 형태를 의상에 활용한 8가지 아트 워크(Antarctica, Connector, Fallujah, Life Line, M.I.U, Architecture, Refuge wear, Urban Life Guard) 분야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루시 오르타 작품 디자인을 보호, 유목, 결합과 생존의 3가지 대주제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II. 건축과 루시 오르타 작품

1. 20세기 이후 건축적 패러다임의 변화

칸트에 의해 인간의 직관적이고 선형적 조건이자 원리로 간주되어온 공간은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예술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물리적 세계의 객관적 질서로 파악되었다.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조형예술인 건축에서는 특히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건축에 있어서 인간의 움직임은 17세기 바로크 건축이후부터 지속적인 탐구대상이었으며, 이는 20세기 초반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적 산책로’ 개념⁵⁾을 통해 구현하였는데 이것은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형태에서 비롯된 기능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건축과 움직임, 공간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1960년대 기계미학을 주도했던 아키그램(Archigram)은 ‘움직임’이라는 건축적 개념을 통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간

생활의 절대적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 구조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키텍트의 움직이는 건축개념은 조립화, 경량화된 구조 시스템과 유동적 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가변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쿠로가와(Kurokawa) 가와조에(Kawazoe), 가구다께(Kakutake)를 중심으로 형성된 메타볼리즘(Metabolism)은 기계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적인 건축에 반발하여 생명성이 포함된 열린 구조 개념을 확립하였다.⁶⁾

1970년대에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혼합된 협동 주거(co-housing) 공간 개념이 덴마크에서 형성되었다.⁷⁾ 이것은 각 가정이 분리된 거주 단위에서 생활하되 부엌, 거실, 놀이터, 회의실 등을 공유하며 요리, 청소, 정원손질, 육아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이러한 협동 주거 프로젝트는 곧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간뿐만이 아닌 업무, 상업, 레크리에이션, 공원 등이 하나의 경전철을 통해 연결되는 소단위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심각한 주거부족 현상과 동시에 유래 없는 엔고 현상으로 건축 붐이 일어났는데, 그 중 후쿠오카 시의 ‘넥서스 월드 카시이’라는 새로운 주거지는 외국 건축가에 의뢰한 일련의 집합 프로젝트로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다. 넥서스(Nexus)란 넥스트(Next)와 어스(us)의 복합어로 ‘가까운 미래의 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임시적인 형태의 성격을 지양하고 매력적이고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중하게 계획된 신도시형 집합 주택이다.

1990년대 이후 건축에서는 유목적 개념이 등장하였다. 토요이토(Toyo Ito)는 ‘노마드(nomad)’라는 건축개념을 통해 현대의 유목적인 유동생활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순간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해야하는 현대 건축의 새로운 과제를 설정한 것이었다. 그는 ‘유목적성을 위한 파오’를 통해 대도시에서의 집이라는 공간을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축소시키는 대신 건축의 사적 공간화의 역할이 도시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20세기 이후 건축은 움직임을 유도하고 상이한 관계들을 연결하는 유동적 매개체로 변화하

여 장소의 공간이 아닌 흐름의 공간(the space of flow)⁸⁾으로서 탈중심화, 분권화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다. 건축은 자연,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거주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간을 통합하고 열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는 비장소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 건축적 패션의 패러다임 변화

고대이래로부터 의복은 건축과 양식적, 형태적, 구조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띠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인체와 관련해서 실용적이며 유동적인 공간조형을 창조해야 하는 건축과 의복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각각의 미의식이나 기능성, 구조적 효용성 등을 차용해 왔는데 이는 특히 의복에 있어서의 건축적 미의식의 반영으로 보다 더 두드러져 나타났다. 건축학자 포시(Fausch)와 위글리(Wigley)는 건축과 패션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언급한 논의에서 일시성, 즉시성, 가변성을 지닌 패션의 시스템을 건축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건축적 패션이라 정의하고 있다.⁹⁾

20세기 초기 건축적 패션은 보다 절제된 건축적 조형성과 미의식을 모방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의 사용과 혁신적인 재단법의 활용으로 형태적, 구조적 유사성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상은 이전에는 없었던 실용적이고 절제된 라인과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중기의 건축적 패션은 보다 건축적 외형에 유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발렌시아가, 피에르 가르맹, 파코 라반 등의 전위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은 인체와 독립되어진 새로운 공간적 조형성을 의복에 구현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체를 왜곡하거나 신체미를 벗어난 새로운 기하학적 조형물로 의복을 전환시켰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후세인 살라얀, 마틴 마르지엘라, 알렉산더 맥퀸, 빅터 앤 롤프, 가레스 퓨 등의 창조적 디자이너들과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요시키 히시누마, 레이 가와쿠보 등의 전위적인 일본디자이너들이 인체와는 무관한 의복 자체의 독립적 공간 조형성을 새로이 창조하면서 신체와 의복사이의 위계관계가 사

라지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하이테크놀로지의 지속적 발전은 의복이 건축과 결합하여 복합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가볍고 질긴 다기능소재의 개발은 이러한 건축적 패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의상과 건축은 형태뿐만 아니라 구성방식이나 활용 소재면에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건축가들이 의상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는 20세기 후반에 더욱 두드러져 나타났으며, 이제 의상과 건축은 상호 관입되어 공간을 공유하는 통합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아방가르드한 형태와 하이테크 기술이 결합되어 인간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의 모방으로부터 시작된 건축적 패션은 가변성에 대한 패션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해 이제 의복에 대한 건축의 모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3. 루시 오르타 작품과 건축의 상관관계

루시 오르타는 원래 영국 출신의 설치, 퍼포먼스 작가로, 의상을 활용하여 현대 도시에서 소외되고 있는 홈리스들의 존재와 그들의 거주와 보호를 위한 공간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고독한 도시 개인들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실업자들을 옹호하고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녀는 20세기 후반 ‘움직임’을 테마로 전위적인 건축가 그룹으로 명명되는 아키텍그램, 메타볼리즘의 창조적 사고를 활용하여, 움직임의 동력을 건축적 기술이 아닌 인간의 움직임으로 변화시켜 환경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전환체로 건축적 패션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집합주택과 지속적인 이동을 지향하며 가동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유목적 건축의 사유를 계승해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개인적 건축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가변적 유목적 의상을 발표하였다.

루시 오르타는 21세기 집 없는 노숙자들과 도시생활의 개인주의에 반발해 이동 가능한 주택과 개개인의 공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을 손

쉽게 결합시켜 공동체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집합 의상을 개발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의상과 건축을 결합시킨 이동 건축 형태로, 집 없는 홈리스들을 위해 신체적 심리적 보호가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적 주거 공간인 ‘레퓨지 웨어’, ‘시티 인터벤션’, ‘헤비턴트’ 시리즈를 발표하였고, 삭막한 도시환경 내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어지는 개개인을 결합시켜 결합과 해체가 자유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디 아키텍처’와 ‘모듈러 아키텍처’, ‘오퍼레이션 라이프 넥서스’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또한 일본의 집합주택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넥서스 아키텍처’, ‘커넥터’ 시리즈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작업은 의상과 건축, 환경을 결합시켜 멀티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체 보호와 움직임에 따른 편의성을 추구하고자 의복 공간을 가변적인 건축공간으로 변화시켜 공간의 탈영토화를 추구하고 있다.

III. 루시 오르타 작품 디자인

1. 루시 오르타 작품의 주제별 분류

루시 오르타의 작품은 의복과 환경을 결합시켜 미래 인류의 상호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의복공간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의상과 관련된 그녀의 작업은 1992년 레퓨지 웨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패션 특성에 따른 분석보다는 디자인 특성별로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그녀의 작품 중 동일 범주의 작업이 다양한 연도에서 수행되어 나타나며, 작품의 디자인 의도와 목적이 연도별과 무관하게 개인에서 집단으로, 환경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개인적 공간, 이동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 보호와 생존과 자율성을 위해 가변적 네트워크 공간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다음 <표 1>은 보호, 이동, 유목적, 결합과 생존을 중심으로 사적 공간, 다목적 공간, 가변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공간으로 세분화하여 루시 오르타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표 1> 루시 오르타 패션 디자인 주제별 분류

주제	분류기준	작품 범주	작품명	제작 연도
Refuge Habitant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보호를 위한 사적 공간	refuge wear	refuge city intervention habitant	1992, 1993 1993-1996 1992, 1993
		life line	survival kti ambulatory sleeper	2008 2004
Nomadic Dwelling	이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	architecture	body architecture modual architecture	1997, 1998, 2002 1996
		life line	M.I.U.(mobile intervention unit)	2003
Connective Nexus & Urban Life Guard	가변적, 자율적 네트워크 & 생존과 구조	connector	connector unit mobile village	2001 2002
		architecture	nexus architecture x 16 nexus architecture intervention nexus architecture Mauritius nexus architecture x 110	1995 1998 2000 2002
		antartica	antartica	2007, 2008, 2009
		fallujah	fallujah clinic kit	2007 2007
		life line	urban life Guard N.I.O N.U.O	2000, 2005 2003, 2005 2003

2. 루시 오르타 작품의 주제별 전개방식 및 특성

1) 레퓨지 헤비턴트(Refuge Habitant)

현대사회는 극도로 유약하고 위태로우며 누구에게도 인정을 베풀지 않는 삭막한 사회로, 직업과 경제적 능력, 주거지 등을 빼앗긴 제 3 세계 나라들은 서서히 거대 국가나 도시에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존은 20세기 후반을 지탱할 새로운 슬로건이 되고 있다.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사회나 집단으로부터 고립된 타자로서의 개인은 어두운 밤길을 배회하는 도둑 고양이처럼 도시의 거리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루시 오르타는 1980년대 경제적 위기 이후 두드러져 나타난 소외되고 억압받고 있는 ‘타자’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근대성이라는 이름하에 사회로부터 이들이 받고 있는 불평등한 제재와 고통, 소외를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루시 오르타는 ‘신체는 공간적 형태를 가진 건

축물인 동시에 사회이며, 의복이란 착용자의 외적 태도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산물이 아니라 착용자 자신의 내부에 있는 본질과 근본적인 실체를 설명한다’고 정의한다.¹⁰⁾ 따라서 그녀의 레퓨지 웨어는 착용자가 어떻게 자신의 신체가 속한 의복 공간을 자율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즉,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정의하는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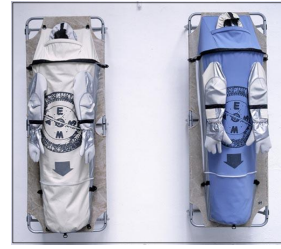
레퓨지 헤비턴트는 삭막한 도시환경 내에서의 집 없는 노숙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보호를 위해 그녀가 제안한 레퓨지 시리즈와 시티 인터벤션, 헤비턴트 시리즈를 포함한다. 레퓨지 웨어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로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개인을 표상하며, 고립되고 단절된 홈리스들을 사회로 재통합시키기 위해 호소하는 시각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목적이다.¹¹⁾ 이것은 최소한의 사적 공간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을 사회나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유리시키거나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적 공간을 창조한다.



<그림 1> Habitent, 1993.
http://www.orta.com



<그림 2> Mobile survival kit, 1998. http://www.orta.com



<그림 3> Ambulatory sleeper, 2004. http://www.orta.com

<그림 1>은 텐트로 변형이 가능한 관초 형식의 외투이다. 등쪽에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스틱이 부착되어 있어서 휴식과 거주를 위한 텐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방수, 방풍효과가 뛰어난 알루미늄(aluminium) 코팅이 되어있는 폴리아미드(polyamide)와 보온을 위한 양털, 알루미늄 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루라기, 랜턴이 내장되어 있다. <그림 2, 3>은 간단하게 접고 펼치는 동작만으로 기후변화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바이벌 키트와 보행이 가능한 슬리핑백이다. 이것은 모두 알루미늄 코팅된 폴리아미드로 제작되었고, 알루미늄 막대가 있는 슬리핑백은 막대를 연결하여 누워 쉬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간이 침상을 만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퓨지 헤비턴트는 도시와 역명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와 심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공간을 제안한 것으로, 물리적, 신체적 보호의 역할과 불특정 다수의 시선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물리적 테러 외에 현대도시생활이 야기하는 무자비한 감시와 응시로부터 개인의 자율성, 심리적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사회가 유지하던 정주성에 근거한 규정을 벗어나 집단의 목적이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자율성과 필요에 의해 이동하면서 사회적, 정치적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새로운 환경을 제안한 것으로 루시 오르타의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2) 노마딕 드웰링(Nomadic Dwelling)

패션분야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로 이동하는 도시 유목민을 위해 기존의 착장 방식인 의복이 거주하는 건축적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사적인 공간인 의복이 공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다른 공간과 결합할 수 있는 집합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루시 오르타(Lucy Orta)의 작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데, 그녀의 ‘바디 아키텍처(Body Architecture), 모듈러 아키텍처(Modular Architecture)’ 시리즈는 이동가능한 건축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제시한다.

노마딕 드웰링은 20세기 후반 등장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거주 의상으로, 패션과 이동성, 거주지의 3가지 요소를 결합시키고 있다. 특히 모듈러 아키텍처 시리즈는 40명이 동시에 춤을 추는 퍼포먼스의 기획을 위해 착안한 것으로, 개인적 결합이 사회적 결합으로 확산되어가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강력한 가시적 기표로 작용하고 있다. 루시 오르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적 결합은 집단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고립시키는 강제적 결합이 아니라 개인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 공존을 도모하는 자율적 결합을 확장시킨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따라서 개인적 공간인 모듈은 자율의지에 의해 언제든지 결합,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적 야영이 가능하고 의복이나 여행 가방으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4>의 바디 아키텍처는 도시의 노숙자, 약자들의 구조, 방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레퓨지 웨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공간에 의한 신체적 결합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인



<그림 4> body architecture, 1997, 1998, 2002. <http://www.orta.com>

간소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이론가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는 오르타의 바디 아키텍처 유닛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인간 소외 문제 구제를 위한 은유적 구성체라고 언급하였다.¹²⁾ 왼쪽 사진은 텐트의 벽면에 후드, 소매, 다리 부분이 부착되어 이동시 바디 슈트로 활용가능한 작품이다. 중간 사진은 남아프리카의 소웨토(Soweto) 공동체 시장에서 구입한 재활용 의상을 텐트위에 부착한 것으로, 의복의 각 부분에 지퍼를 부착하여 결합과 해체를 통해 개인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오른쪽 사진은 소우주인 개인적 유닛이 대우주인 커다란 텐트로 결합되어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유닛은 개별적 텐트로 활용가능하며 지퍼를 통해 연결하면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적 공간이 텐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체적 연결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각각은 알루미늄 코팅된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 재활용 의상, 알루미늄 막대, 지퍼, 실크 스크린 프린트, 구리 연결관, 라이크라(Lycra), 탄소 전기판(carbon armature) 등으로 제작되었다.

루시 오르타는 라이프니츠의 신체 매커니즘 이론인 모나드(monade)¹³⁾에 기초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광범위한 매커니즘으로 간주하였는데, 모듈러 아키텍처 시리즈는 단순함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변화와 위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매개체로 패션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5>는 모듈러 아키텍처 시리즈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유닛(unit)인 모듈과 이것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사진의 돔(dome)으로 구성된 유닛은 팔이나 다리, 후드 등 돔에 부착할 수 있는 개인적 부속물에 의해 착용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때 각 부속물은 건축공간으로 용해되었으며, 건축적 돔과 의복의 구성요소인 팔, 다리, 후드를 분리함으로써 거주공간은 패션공간으로 변화되어진다. 각각은 통기성과 흡수성이 우수하고 수질 정화기능이 있는 마이크로포러스 폴리에스테르(micriporous polyester)와 지퍼, 알루미늄 코팅 폴리아미드로 제작되어있다. <그림 6>은 개인적 거주 공간인 레퓨지 헤비턴트에 이동성을 더한 자율적 결합공간이 노마드 호텔로서, 군용 트럭, 강철, 슬리핑 백, 사다리, 캠핑용 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각의 사적 공간인 유닛을 운송



<그림 5> Modular architecture, 1996. <http://www.orta.com>



<그림 6> M.I.U, Nomad hotel, 2003. <http://www.orta.com>

수단과 결합한 이동 가능한 유닛(M.I.O, Mobile Intervention Units)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비상시 정수여과시스템이나 일반적인 숙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었다.

루시 오르타의 이동 가능한 유목적 거주 공간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비가역적인 공간을 해체하여 공간과 구조 자체의 자유로운 결합성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 정주적 개념에서의 영토성, 장소성을 해체하고 있다. 즉, 그녀가 창조한 유목적 거주 공간으로서의 의복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변용이 가능한 자율적 공간으로, 목적, 완성, 결과, 정지로서의 공간을 개방시켜 과정, 관계, 움직임, 자율성을 지향하는 비공간성을 통해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위계성을 해체하는 탈영토화를 지향하고 있다.

3) 커넥티브 넥서스(Connective Nexus)와 어번 라이프 가드(Urban Life Gaurd)

커넥티브 넥서스는 커넥터(Connector), 넥서스 아키텍처 (Nexus Architecture)를 통해 차가운 도시공간에서의 개별적 유대를 강화하고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자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관계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을 보호하는 사적 공간인 레퓨지 웨어와 21세기 유동적 환경에 따른 이동성, 건축적 개념이 결합한 유목적 건축 개념이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한 유닛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일본의 집합 건축인 넥서스의 개념을 빌려와 이동 가능한 사적 공간인 패션에 적용시킨 것으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결집과 해체가 용이한 가변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그림 7>의 모발 빌리지(Mobile Village)는 커넥터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해안에 쪽에 위치한 로트니스(Rottness) 섬의 조그만 자치구역인 매크로랩(Makrolab)에서 120일 동안 루시 오르타를 비롯한 과학자, 아티스트, 미디어 연구가 등이 협력하여 개발한 작품이다.¹⁴⁾ 커넥터 유닛은 이동 가능한 소규모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사적 구성요소로서 개인의 필요와 활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다.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진 유닛들의 결합은 소규모 이동 집단의 활동력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성 높은 가변적 커뮤니티이다. 이것은 쾌적한 라이크라 재킷과 슬리핑백, 유연한 저장설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결 가능한 꼬투리로 결합되어 있다. 의복의 앞면에 부착된 태양 전지판은 휴대용 컴퓨터 사용이나 휴대폰의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재킷을 결합시키는 꼬투리는 모듈러 빌리지(modular village)의 개념을 위한 이동성, 상호결합성, 결합구조의 발전을 위한 메타포로 작용한다. 이것은 알루미늄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양면사용이 가능한 라이크라, 폴리우레탄, 휴대용 태양전지, 지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은 2002년 프랑스에서 110명의 어린이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연결한 넥서스 결합체이다. 이러한 넥서스는 강압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자율적인 개인공간과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상징적 공간 결합을 시사하는 것으로,¹⁵⁾ 개인과 이웃의 상호결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고립과 소외를 방지하며 물리적, 시각적으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관계형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7> Connector Unit & Mobile village, 2001, 2002.
<http://www.orta.com>



<그림 8> Nexus Architecture, 2002.
<http://www.orta.com>



<그림 9> Antartic village, 2007, 2008. <http://www.orta.com>



<그림 10> Urban Life Guard, 2000, 2005.
마리 오마호니, 사라 E.브래독. (2004). 스포츠 테크. 예경, p.85

<그림 9>의 앤타틱 빌리지(Antartic Village)는 극지방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과 구조를 위한 텐트로서, 물리적 구조뿐만이 아닌 국경이나 경계와 같은 분할로부터 인간소외를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명으로 전 세계의 국기를 텐트외벽에 장식하였다. 이는 물리적 신체적 보호와 더불어 생존을 위한 인류의 공통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퍼포먼스로서, 자원고갈과 전쟁, 자연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동하는 인류의 생존을 저해하는 국경, 자원분할과 같은 인간에 의해 강제된 경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 인류가 초국적으로 협력하고 상생해야함을 보여준다. 또한 텐트에 부착되어진 다양한 깃발과 의복, 장갑 등을 다양한 인종의 다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차별 없이 포용하고 융합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리즘을 강조하고 있다.

루시 오르타의 작품은 사회적 모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제적 위기, 사회적 균열에 대한 경고로서 현대 도시환경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¹⁶⁾ 어번 라이프 가드(Urban Life Guard)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자연 환경에 대비해 위급 상황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은 다이빙 장비와 응급 구조 장비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의복의 역할과 대피소에 관한 아이디어의 탐색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것은 기존 의복의 보호 기능 외에도 생존과 구조의 기능을 첨가한 것으로, 각각은 알루미늄 코팅 처리된 폴리아미드, 가죽띠, 클립, 목재로 만든 머리 지지대, 나일론

끈, 라이크라 직물 등으로 구성되어 방수성, 단열성, 흡수성을 가지며 착용자를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분통제 및 관리가 우수하도록 구성되었다.

3. 루시 오르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공간구조와 조형적 특성

1) 공간 구조

첫째, 모듈러 시스템(modular system)¹⁷⁾을 활용한 결합, 해체구조이다. 이것은 레고처럼 비슷한 형태와 구조의 개별적 공간을 결합하여 보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 개별공간의 결합은 건축에서의 복도와 같은 중간공간의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 개별 공간을 하나의 유닛이나 모듈로 하여 이들을 결합, 복수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결합수에 따라 개인이 다양한 크기의 집단 내에 소속될 수 있으며 각 결합과 해체는 개인의 자율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수의 공적 공간과 단일의 개별적 공간이 필요에 의해 상호 결합하고 해체하며 공간의 규모와 형태의 변화를 지향한다.

개별적 휴식과 보호 공간인 레퓨지 웨어나 서바이벌 키트를 하나의 모듈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 공간을 창조하는 바디 아키텍처, 모듈러 아키텍처, 넥서스 아키텍처, 커넥트 시리즈는 개인적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결관을 통해 네트워크형식의 공동 공간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단일의 공동공간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림 11>의 넥서스 아키텍처는 극한 환경에서도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 활동에 효율적인 보호 유닛들



<그림 11> Nexux architecture, 1998. <http://www.orta.com>



<그림 12> Dobble cocoon. 2000. 마리 오마호니, 사라 E.브래독. (2004). 스포츠 테크. 예경, p.49.



<그림 13> Mobile Cocoon & baby carrier. 1994. <http://www.orta.com>

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유닛은 벅속의 아기가 엄마의 땃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듯이 배와 등 부분에 상호 결합할 수 있는 관으로 연결되어 이 관을 통해 상호 체온을 교류하며 신체적 결합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둘째, 폴딩 시스템(folding system)을 활용한 가변적 구조이다. 이것은 기능에 따라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변화하며 형태가 바뀌는 것으로 개별적 공간이 복수 공간이나 집합적 공간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은 접고 펼치는 단순 방식을 통해 개인의 움직임과 활동, 필요에 적합한 기능을 충족시키며 의복공간이 건축적 공간으로 확대되거나 건축적 공간이 의복공간으로 축소되면서 상이한 아이템으로의 변화를 지향한다. <그림 12>는 접고 펼치는 단순한 동작을 통해 슬라이핑백과 텐트로 활용 가능한 레퓨지웨어 2개를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도시 이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고안되었다. 이것은 실크 스크린 프린트 처리된 양모와 미세 기공이 있는 폴리우레탄사이에 항균성 니트 직물을 삽입하여 직조되었고, 미세한 중공구조를 가진 신소재를 사용하여 의복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단열성을 제공한다. <그림 13>은 폴딩 시스템을 통해 이동에 편리한 작은 백과 슬라이핑 백, 베이비 캐리어로 사용 가능한 레퓨지웨어이다. 방수, 발수, 방풍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제작되어 체온을 유지하고, 특히 베이비 캐리어는 양모직물과 폴리에스테르를 접착하여 제작함으로써 외부 환경으로부터 아기의 신체를 보호해준다.

2) 조형적 특성

첫째, 바디 아키텍처, 모듈러 아키텍처, 넥스 아키텍처 시리즈는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으로 통합되거나 공통체적 공간이 개별공간으로 해체되면서 하나의 공간성을 유지하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장소성을 일탈한 ‘비장소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일↔다로 자유롭게 변화되어지는 디자인은 공간을 정주와 불변의 장소적 특성에서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과정적인 비장소로서의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공간은 착용자와 결합자들사이의 움직임과 목적에 의해 개폐되어지고 생성, 소멸되어지는 일시적, 과정적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점유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지표로 활용되던 건축적인 정주적 공간성은 상실한다.

둘째,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복의 각 부분을 결합과 해체, 변화가 가능한 단일 모듈로 구성하여 의복 공간을 가변화 시킴으로서 모듈사이에 자유로운 결합을 지향하는 ‘상호결합성’이 나타난다. 각 유닛은 공간의 복수화 이외에도 이동성과 편의성, 보호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부품과 결합이 가능하다. <그림 14>의 바디 아키텍처는 8개의 개별 유닛으로 해체가 가능한 텐트로 구성되어 있다.

텐트의 서로 다른 벽면과 천장을 형성하는 유닛인 바디 수트는 후드와 소매는 공통으로 하나씩 구성되어 있고, 텐트를 구성하는 부위에 따라 다리는 구성되지 않거나 2개,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바디 수트의 각 부분은 모두 지표로 구성되어 이를 연결할 시 8명을 하나의 공동 공



<그림 14> Body Architecture, 1998.
http://www.orta.com



<그림 15> Vetement Collective, 2000.
마리 오마호니, 사라 E.브래독. (2004).
스포츠 테크. 예경, pp.6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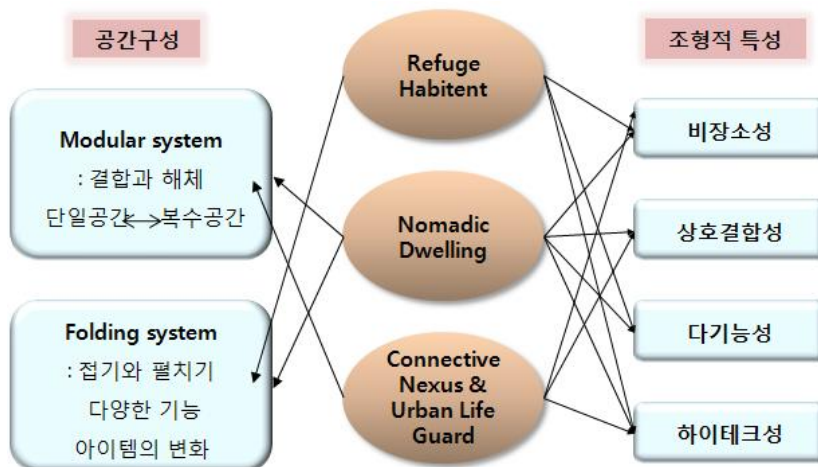
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텐트로 결합되어진다.

셋째, 급격한 기후 변화나 각종 테러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자연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물리적, 심리적 생존이나 보호와 더불어 이동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기능성’의 특성이 나타난다. 루시 오르타의 작품은 개인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손쉽게 이동 가능한 구조로, 건축적 기능과 의복의 기능, 구호장비의 기능을 긴밀히 통합시키고 있다. <그림 15>은 알루미늄 스틱이 내장된 텐트에 후드와 소매부분이 부착되어 있어서 지퍼를 열어 오픈하면 6개의 판초로 변화할 수 있는 바디 아키텍처 작품이다. 이동시 판초로 이용하고 휴식 시 텐트를 구성하며 착용자의 움직임과 활동성에 효율성을 부가한 것으로, 텐트 벽으로 이용되는 판초는 극세 섬유로 만든 부직포와 방

화 처리된 폴리염화비닐을 접착시켜 만들었으며, 폴리에스테르와 비스코스레이온 혼방으로 만들어진 후드와 함께 자외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라믹 코팅을 하여 제작되었다.

넷째, 루시 오르타는 다기능성과 고기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어진 현대의 하이테크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높은 강도와 발수, 방수기능을 가진 하이테크의 건축적 의상디자인을 지향한다. 디자인에 활용되어진 각 요소들은 상이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단순한 형태와 고기능성 최첨단 소재의 활용을 통해 하이테크성을 증진시킨다.

다음의 <그림 16>은 루시 오르타 작품 디자인의 특성을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6> 루시 오르타 작품 디자인 특성

IV. 결 론

본 연구는 의복과 건축적 형태를 결합시켜 개인적 공간인 의복을 건축으로 통합시킨 루시 오르타 작품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건축적 형태와 더불어 건축에서의 공간 활용을 의복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21세기 도시 유목민이나 관계성이 단절된 도시환경에서의 새로운 관계형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션과 건축적 결합 형태를 분석, 고찰한 것이다.

루시 오르타는 물질만능주의의 삭막하고 고립된 도시환경과 지나친 개발에 따른 자연과피에 의한 환경적 재앙 속에서의 인간 생존과 보호를 위한 공간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녀의 작업은 사회적 배제, 거주, 이동성, 지속가능한 발전, 재활용과 자율적 커뮤니티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예술과 의복, 건축, 환경을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녀는 21세기 이동성을 중심으로 개인적 사적 공간과 자율적인 공적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보다 가벼우며 변화가 용이한 의상을 건축과 결합시키고 있는데, 오르타의 작품은 보호, 거주, 커뮤니티 형성으로서의 건축적 공간 개념과 생존, 구조를 위한 장비, 개인적 아이덴티티의 표현을 위한 의복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진 복수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변적 공간구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복수 공간으로 분할되거나 단일 공간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정주적 공간성, 장소성을 일탈하고 있다.

루시 오르타 작품디자인은 지속적으로 개인을 감시하고 소외시키는 도시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심리적, 물리적 보호를 위한 사적 공간인 1) Refuge Habitant (Identity Refuge, Habitant, Refuge Wear), 이동성을 지향하는 디지털 유목민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작고 가볍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 공간으로서의 의복을 보여주는 2) Nomadic Dwelling(Body Architecture, Modular Architecture, M.I.U), 21세기 소외되고 고립되는 도시 생활거주자들을 상호 친밀하게 결합시키고 접촉시킴으로써 상호 유대감과 소속감, 관계성을 재형성하고, 급격한 산업화와 인간의 이기주의로 빚어진 환경과피로 인한 전 지구생물과 인류생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생

존과 구조와 관련된 3) Connective Nexus와 Urban Life Guard (Connector, Nexus Architecture, Antarctica, Life line, Urban Life Guard)로 분류하여 특성을 고찰하였다.

루시 오르타의 건축적 의상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닛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공간을 복수화 시키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러 시스템과, 접고 펼치는 단순한 작동을 통해 상이한 아이템으로 변화시켜 복합적인 기능을 만족시키게 하는 폴딩 시스템을 공간구성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합방식은 기존의 일원적 방식을 넘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초현실주의의 디페이즈망(depaysment)의 특성이 나타나며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다른 아이템이나 공간으로 확장, 변화시킬 수 있는 히드라(hydra)식 변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정주, 장소로서의 공간개념을 해체시켜 확장, 전환, 축소, 통합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비장소성으로서의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이때 단일 유닛사이의 자율적인 결합에 의한 상호결합성이 두드러진다. 21세기 유목적 환경에 적합한 루시 오르타의 작품은 다양한 아이템과 공간으로 변화가능하기 때문에 다기능성이 나타나며, 상기의 여러 가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어진 최첨단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이테크성의 특성이 고찰된다.

본 논문은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는 다목적 패션과 가변적 패션의 발생 배경을 건축적 사고에 두고 의복과 건축사이의 구성적, 형태적 자유로운 결합관계를 고찰하는 것으로, 모더니즘 이후의 많은 건축가들과 패션디자이너들의 사유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보다 유연하고 사적인 거주지를 지향하는 건축적 패러다임과 보다 관계적이고 기능성을 지향하는 의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건축과 의복이 결합되어지는 미래의 통합적 공간을 이해하는데 일조하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건축과 공간 (2009.09. 17). 자료 검색일 2009. 11. 11. 자료출처 <http://www.kiid.or.kr/servelet/>
- 2) 김혜영, 김유연 (2005). 모더니즘을 통해 구현된 패션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5(1)*, pp.43-58.
- 3) 김혜영, 허다슬 (2005).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5(4)*, pp.62-78.
- 4) 양희영, 양숙희 (2006).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건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복식 56(7)*, pp.85-100.
- 5) 박신미, 이재정 (2008). 20세기 패션디자인의 건축적 패러다임 특성 고찰. *복식 58(2)*, pp.78-92.
- 6) 양희영 (2008). 20세기 후반 이후 패션구성 방식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 *한국의류학회지 32(5)*, pp.788-799.
- 7) 임은혁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가미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3(8)*, pp.1253-1261.
- 8) 진경옥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건축공간의 중첩연구. *복식 59(9)*, pp.163-179.
- 9) 나영원, 박명희 (2006).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 pp.167-175.
- 10) 김완주, 이금희 (2008). 슈퍼모더니즘패션의 보호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8)*, pp.1264-1273.
- 11) 건축적 산책로: 연속되는 이동을 통해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할 때 각각의 크기를 가지는 볼륨들은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을 맺어야 건축적 감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건축적인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움직임’과 ‘시선’과 ‘볼륨’과 ‘형태’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형성시켰다. 즉 볼륨을 가지는 공간은 움직임을 통해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며 이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선의 이동은 형태가 지니는 미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를 인지하며 즐긴다는 것으로, 움직임을 통해 기능적이고 미적인 기능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2) 길성호 (1999). *현대건축사고론*. 서울: 시공문화사.
- 13) 쿠로가와와는 ‘기계의 시대는 생명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여 건축에서의 자연, 생명과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그는 기능적이고 이성의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지는 기계는 가능성으로서의 모든 불명확성을 제거하는데 반해 생명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동적 구조로 불완전하며 따라서 불확정적이라 하였다.
- 14) 박정남 (2002). 시대적 변천에 따른 유동적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5) Diane Ghirard, 최왕돈 역 (2002).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건축*. 서울: 시공아트.
- 16) 이화순 (2003). 유목적 사고개념을 적용한 디지털 트렌드센터 계획안.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7) 박신미, 이재정 (2008). 20세기 패션디자인의 건축적 패러다임 특성 고찰. *복식 58(2)*, pp.78-92.
- 18) 루시 오르타의 이러한 생각을 다니엘 시보니(Daniel Sibony)는 ‘일정 공간에 거주한다는 것은 공간과 신체를 융화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강조하였다.
- 19) Refuge Wear Habitent (1992-1993). 자료 검색일 2009. 10. 05. 자료 출처 http://www.studio-orta.com/artwork_fiche.php/
- 20) Refuge Wear City Interventions (1992-1996). 자료 검색일 2009. 10. 13. 자료출처 http://www.studio-orta.com/artwork_fiche.php/
- 21) Body architecture - collective wear (1998). 자료 검색일 2009. 10. 5. 자료출처 http://www.studio-orta.com/artwork_fiche.php/
- 22) 라이프니츠는 살아있는 개체의 몸은 단순한 물질-공간이 아닌 그 자체로 ‘질적 인다’이며 활동하는 존재인 하나의 실체라고 주장하였다. 통일체, 단일성을 의미하

는 ‘모나드(monad)’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다른 형태로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간의 소통은 무한하게 복수화된 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는 모든 물체는 내부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중첩구조’로 되어 있으며 물체의 이러한 중첩구조를 통해 모든 운동은 점진적이고 순차적이며 연속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양희영, 양숙희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라이프 니츠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 복식 57(1). pp.130-146.

- 20) Connector Mobile Village (2002). 자료 검색 일 2009. 11. 20.

자료출처 http://www.studio-orta.com/artwork_fiche.php/

- 21) Quinn. B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UK: Berg.

- 22) 김완주 (2008). 슈퍼모던 환경에 대응하는 패션디자인의 특성.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23)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공간의 크기를 개량하는 기본으로 인간의 신체를 분석하였고, 인간신체를 척도로 수학적 원리와 기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건축을 위한 인간 척도 체계인 모듈러(Modulor)를 창안하였다. 그는 이것을 모든 디자인에서 활용 가능한 척도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부분에서 전체로 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조성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치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치수들의 조합은 무한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원윤경 (2002). 르 꼬르뷔지에 건축에서 신체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